

서구, 동 넘어 생활권역 공통사업 만든다

AI로 생활권 의제 미리 살펴보고 주민 공론으로 대표의제 선정
‘마을 속 마음치유’ 주제로 실행계획 구체화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서구가 권역 대표의제 발굴 공론장에서 주민들과 공동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들의 생활 속 공통 관심사를 찾아 여러 동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는 ‘권역 대표의제 발굴 공론장’을 열었다.

서구는 지난 4일 어린이생태학습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생활권(금호1동·양동·농성1동·상무2동)’ 주민들과 권역을 대표할 공동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단일 동의 경계를 넘어 여러 동에서 공통으로 발생하거나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동별 유사사업을 권역 공동사업으로 연계해 주민자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히 아이디어를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대표의제 선정 이후

세부 실행방안과 소요예산, 성과지표까지 구체화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구는 구정의 주요 방향과 각 동의 연간계획 등을 AI플랫폼으로 사전 분석해 권역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통 주제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함께하는 생활권’의 공통 의제로 ‘마을 속 마음치유’를 선정했다.

논의 과정에서 ▲마을이 품은 씬표(템플스테이 체험) ▲마음을 잇는 상생정원(치유정원) ▲마음 씬표, 쉬게소(상담 프로그램 운영) ▲들락날락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밥상 등 4개의 의제사업 후보를 발굴했다.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마을이 품은 씬표’사업을 권역 대표의제로 최

종 선정했으며 서구는 소요예산, 동별 실행방안 등을 고려해 사업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의제 발굴에 실질적인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고자 이번 공론장을 계획하게 되었다”며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한 권역 대표의제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주민자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각 지역의 생활 속 불편과 관심사를 공유하며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서구는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선정한 의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권역 공동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북구, 민선9기 첫 추경 1,707억 증액...1조3,200억 확정

부끄머니·재해복구 등 민생·안전 예산 편성
공공생리대 지원 등 복지 예산도 두루 반영

지난 4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북구의 예산 규모가 기존 대비 1,707억 늘어난 ‘1조 3천 2백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북구(구청장 신수정)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민선 9기 구정 동력 확보를 위해 민생 경제와 주민 안전을 살피고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먼저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주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는 ▲부끄머니 발행 25억 7천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8천만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 1억 6천만 원 ▲해외시

장개척단 운영 9천만 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발행마다 조기 소진됐던 지역화폐 부끄머니의 하반기 추가 발행 예산 11억 6천여만 원을 증액 편성해 오는 11월에 판매될 수 있도록 재정적 준비를 마쳤다.

안전에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5억 원 ▲하수암거 보수 및 하수도 정비 4억 6천만 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2억 4천만 원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 1억 1천만 원 등이 신규 및 증액 편성돼 일상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힘을 더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수곡천 재해복구 115

억 원 ▲구 산동교 재해복구 20억 원 등 작년 여름 발생한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도 신규 반영됐다.

또 ▲국가예방접종 22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5억 2천만 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1천 4백만 원 등이 증액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3억 6천만 원 ▲공공생리대지원 시범사업 2억 5천만 원이 새롭게 편성돼 복지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예산으로는 ▲본촌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 8억 8천만 원 ▲월산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북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조성사업 3억 원 등이 포함돼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 없는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변화하는 행정수요

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확정된 예산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화폐 추가 발행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폭우 피해 복구와 재해 예방 사업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북구는 확정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향후 분야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예

/김경관 기자



북구청 전경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

초록빛 장성에서 만나는 힐링 씬표

여행은 장성으로

성장장성
Jangseong

축령산

남창계곡

장성호 수변길